

#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8회》

## [제6편] 이만제단시대 제3부

### 一. 감람나무

- 1) 1950년 중반, 박태선 영모와 감람 나무의 증거
- 2) 감람나무 교리의 선포와 기성 교계의 파장
- 3) 두 감람나무의 정체와 기성 교회 해석에 대한 비판

### 一. 감람나무

#### 1) 1950년 중반, 박태선 영모와 감람나무의 증거

전도관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에서 신도들이 체험한 향취와 이슬 같은 은혜는 성령의 완성 단계인 '이슬성령'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14:5-6)에 따르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고 백향목 같은 향기를 발하는 존재는 「감람나무」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제단 예배 초기, 박태선 장로님은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감람나무의 존재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집회 현장에서 신비로운 향취와 이슬 같은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신도들은, 성경 속 감람나무가 곧 박태선 장로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과 성경적 증거가 맞물리면서, 전도관 교인들은 그를 「감람나무 영모님」이라 불렀습니다. 성령의 3단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이슬같은 은혜를 받으면 감람(橄欖)나무라는 완성된 존재로 출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 2) 감람나무 교리의 선포와 기성 교계의 파장

박태선 장로님이 이슬성령과 향취를 근거로 자신을 「감람나무」라 증거하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던 생소한 교리에 교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박 장로님이 기성교회의 구원을 부정하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자, 대

책을 마련하지 못한 목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도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기성교회 예배에 찾아가 감람나무에 대해 공개 질문을 던지는 사태가 빈번해졌습니다. 답변이 공색해진 목사들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내쫓기도 했으나, 학생들의 공세는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목사들은 비상 회합을 열고 세계적인 신학 서적을 뒤적이며 뒤늦게 감람나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인들 앞에서 권위를 유지하고 전도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이었으며, 당시 전도관과 기성 교계 사이의 극심한 대립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 3) 두 감람나무의 정체와 기성 교회 해석에 대한 비판

##### ① 기성 교회의 해석과 한계

성경 스가라 4장에는 금기름을 흘려 내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라. 가로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를 모셔 앉은 자니라 하시니라.” (스 4:11-14)

그러나 오직 예수 구원론에만 몰두해온 기성 교회 목사들은 이 존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전도관 청소년들의 질문에 당황한 목사들은 신학적 연구 끝에 구약의 두 감람나무를 과거 인물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스가라서에 두 인물이 능력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한 해석이었습니다.

##### ② 과거 인물설에 대한 반박

③ **기름 부음의 실제:** 구약시대 제사장과 왕들에게 부었던 감람나무 기름은 참된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기름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라는 어원도 역시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제사장(출40:13-15)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울왕(삼상10:1), 다윗왕(삼상16:3), 솔로몬왕(왕상1:39) 등 이와 같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명자들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명칭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④ **금 기름의 근원:** 스가라 4장 12절에 기록된 「금 같은 기름을 스스로 흘려내는 감람나무는 누군가로 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기름의 본체이자 이기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람나무는 왕 중의 왕이며 구세주의 대명사입니다.

⑤ **구세주 출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회복의 과정을 거칩니다.

⑥ **영모님의 역사와 역할:** 전도관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조희성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한 예비적 역사였습니다. 박태선 영모님은 조희성님을 이긴자 구세주로 완성하기 전까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 칭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일종의 「쇼(양면)」를 하였습니다.

⑦ **삼위합일의 원리:** 구세주의 출현은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출현하여 한 분으로 합일되는 고도의 영적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감람나무를 「예수의 종」이라고 하며 당신(영모님)이 예수의 종이라고 항상 표현하시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전도관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실제 두 감람나무가 아니라, 미래에 출현할 주인공을 상징하는 대명사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인물이며, 스룹바벨은 이스라엘민족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였고 때 바빌로니아왕 고레스의 해방령을 받아 이스라엘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 후 황폐화된 성전을 재건한 총독으로, 이들은 이미 과거에 사명을 다하고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두 감람나무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장차 나타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미래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 ③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과 기성 교회의 무능 그리고 영모님의 선포

전도관 측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동일하게 「두 감람나무」가 예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기성 교회의 논리를 비판합니다. 만약 감람나무가 과거의 인물에 불과하다면, 왜 신약성경에 다시 미래의 존재로 등장하는지는 질문에 목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모님은 기성 교회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으며 구원의 불은 꺼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을 「범어리 개」이자 「말각한 목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의 무지와 탐욕을 질타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범어리 개들이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워 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말각각한 목자들이라.” (사 56:10-11)

##### ④ 기성 교회의 「모세와 엘리야」 해석과 그 모순

“내가 나의 두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0일을 굶은 배움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가 있어 능히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요한계시록 11장 3-6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며 재앙을 내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등장합니다. 1956년 당시 기성 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나타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와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근거로, 이들을 과거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석했습니다. (참조: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렸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못오게 하다가 다시 비를 오게도 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전도관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구약 스가라서의 예언이 신약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것은 감람나무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중요한 주인공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성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존재에 무관심하다가 실제 주인공(영모님)이 나타나 증거하자 당황하여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는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예언이 이긴자 구세주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장마철(6월 15일에서 7월 15일 까지) 한 달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며 또한 이긴자가 축복한 물은 피와 같은 생명수로 화합니다. 실제 미

친 사람의 눈에는 피로 보이기에, “이 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축복 받은 생수에는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수로 화한 물을 정신병자에게 먹이니 즉시 미친병이 나아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 ⑤ 방언과 입신에 대한 영적 분별: 사도 바울과 나장로 비판

당시 용문산 기도원의 나운몽(羅雲夢) 장로와의 결별 사건을 통해 영모님의 영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⑥ **방언과 입신의 정체:** 나(羅) 장로의 집회에서 나타난 방언과 입신 현상을 영모님은 「마귀의 신」이자 「악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영모님이 방언과 입신을 하는 교인들을 안찰을 하면 손닿았던 곳이 얘기주먹만 한 시퍼런 흙이 튀어 올라오면서 안찰받던 교인들이 까무러치곤 하였습다. 그러면 「이것이 마귀의 신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방언과 입신의 신을 강하게 쳐버리는 것입니다.

영모님은 안찰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물리쳤으며, 고린도전서 14장을 인용하여 질서 없고 어지러운 현상은 하나님의 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남을 가르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전14:19).”

“대개 하나님의 신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니라(전14:33).”

⑦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알아듣는 말을 강조하

긴 했으나, 그것이 마귀의 신이라고 단호하게 쫓겨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마귀 신을 성령으로 오해하게 된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⑧ **전도관의 차별성:** 현재까지도 전도관과 승리제단은 이러한 마귀의 신(방언, 입신)을 배척하는 유일한 곳이며, 기성 교회는 여전히 이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⑥ 「굶은 배움」 논쟁과 감람나무의 실제

기성 교회와 나(羅) 장로는 영모님이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11장의 「굶은 배움」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공격했습니다.

⑨ **비판 내용:** 용문산의 나(羅) 장로에 의하면 「성경 속 감람나무는 굶은 배움을 입어야 하는데, 박 장로는 마카 오 신사 양복을 입고 있으니 가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⑩ **영모님의 반박:** 이에 대해 영모님은 「배움 입은 자가 감람나무라면 서울 미아리 공동묘지에 곡하는 상주들이 다 감람나무냐?」라며 문자주의적 해석의 허구를 위트있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비유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감람나무에 대한 모든 논란은 그 주인공인 「영모님」이 직접 나타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정리되었습니다. 영모님은 스스로가 감람나무라는 장본인이었기에 기성 신학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고, 이에 반박하지 못한 기성 교권 세력은 결국 성경 이사야 56장 10절의 표현처럼 「범어리」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영의 싸움의 단계 Stages of Spiritual Warfare

#### 1. 첫 번째 단계: 참는 것 - First Stage: Endurance

영의 싸움에서 첫 단계는 참는 단계이다.

The first step in spiritual warfare is the “stage of endurance.” 이 참을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참을 수 있는 단계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You must go through this stage of patience to truly change into a patient person.

#### 2. 두 번째 단계: 매사에 감사 - Second Stage: Gratitude in Everything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참아야 참는 단계를 지나니 어떤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하게 된다.

After passing the stage of endurance, you begin to feel thankful for everything that happens.

그다음부터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From this point, tears of gratitude begin to flow naturally.

#### 3. 세 번째 단계: 고도로 사모함 - Third Stage: Deep Longing

초초로 내 주님만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단계이다. In this stage, you look only to the Lord every moment and long for Him deeply.

다른 생각이 내려야 날 수가 없는 단계이다. It is a stage where no other thoughts can enter your mind.

#### 4. 마지막 단계: 주님만 보임 - Final Stage: Only the Lord is Seen

완전히 주님의 얼굴이 양 눈에 박혀져 있는 단계이다. In this final stage, the Lord's face is deeply engraved in your eyes.

눈만 뜨면 내 주님이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단계이다. Whenever you open your eyes, you see the Lord and can never forget Him.\*

### 二. 감람나무란?

- 1) 감람나무의 실제와 구세주 출현의 역사적 과정
- 2) 감람나무 원리와 가지의 관계: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 二. 감람나무란?

#### 1) 감람나무의 실제와 구세주 출현의 역사적 과정

##### ① 감람나무의 증표: 이슬은혜와 향취

성경 호세아 14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감람나무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고 「진동하는 향취」가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과거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은 이러한 징조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자신이 감람나무임을 증명하였고, 이에 따라 「감람나무 영모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② 성경적 근거와 감람나무의 신격(神格)

성경 스가라 14장 등에 예언된 「감람산에 서시는 주」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자 구세주 하나님이 감람나무의 형상으로 출현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날에 주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골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 그날에는 빛이 없었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와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그 때가 언제 올지는 주께서만 아신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도다 ...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스14:4-9)



▲ 예수의 충실한 종으로 소를 하시는 영모님

그러나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구세주의 출현을 설명하다 보면 맨 끝에 가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충격적인 역사를 설명하게 됩니다.

##### ④ 기독교의 과오와 참 구세주의 발견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진짜 구세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⑤ **예수관의 비판:** 기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매달려 왔으나, 성경 속에 감추어진 진실은 이를 가짜 구세주에 매몰된 과오로 규정합니다.

⑥ **도성인신(道成人身):**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도성인신」의 실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대명사이며, 이슬은혜의 주체인 이긴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목운(木運) 박태선 영모님이 이긴자 전도관 역사는 금운(金運) 조희성이라는 완성된 구세주를 세상에 내놓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감람나무(금 기름의 본체)로 오신 하나님이 천하의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편에 계속)